

하이(Hi) **틴** 공부합시다

월드컵 축구대회 경제효과는 ?

■ 월드컵과 정치

독일월드컵 12조원... 기업들 마케팅 활발

2006독일월드컵 축구경기가 오는 6월 10일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 독일 뮌헨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국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과 함께 시작합니다.

지역 예선 847경기를 거쳐 본선에 오른 32개국이 격돌을 벌이며 한국은 6월 13일 밤 10시 프랑크푸르트에서 토고와 첫 대결을 벌이고 19일 오전 4시 프랑스(라이프치히), 24일 오전 4시 스위스(하노버)를 상대로 16강행을 노립니다. 결승전은 7월 10일 새벽 3시에 열립니다.

전 세계 65억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월드컵의 역사와 월드컵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월드컵축구대회와 한국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로 4년마다 열리는 축구대회입니다.

제1회 대회는 1930년 우루과이에서 열렸고 13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월드컵은 1938년 제3회 프랑스 대회 이후 제2차 세계대전으로 12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950년 제4회 대회가 브라질에서 다시 열렸고 초기대회는 오늘날과 달리 초청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시에는 연맹회장인 J.졸리메가 졸리메컵을 제공해 '졸리메컵 세계선수권대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졸리메컵은 대회에서 3번 우승한(1958, 1962, 1970) 브라질에게 영구히 넘어갔고 그 뒤 FIFA에서 우승컵을 제공해 FIFA 월드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참가자격은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리지 않으며, 선수의 소속 클럽이나 팀의 국적이 아니라 선수 개인의 국적에 속해 출전합니다. 본선은 지역예선을 거친 32개국이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로 경기를 벌입니다.

한국은 1954년 제5회 스위스대회와 1986년 제13회 멕시코대회, 1990년 제14회 이탈리아대회, 1994년 제15회 미국대회, 1998년 제16회 프랑스대회의 본선경기에 진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4회 연속 본선진출국이 되었습니다. 2002년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는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했고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4강에 진출하는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2 경제효과는 얼마?

월드컵은 연인원 600억명이 시청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제전입니다. 그 만큼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매우 큼니다.

투자나 소비 지출, 광고 등의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개선 등 무형의 간접



연인원 600억명이 시청하는 월드컵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제전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특히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2006독일월드컵은 통신, 가전, 온라인 등 업체들의 놓칠 수 없는 마케팅 무대다. 지난 4일 한국과 가나의 평가전이 열린 시청 앞 거리 광장 응원 모습. /연합뉴스

적 효과도 높습니다. 실제 재정경제부는 2002 한일 월드컵으로 우리나라가 26조4,6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거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경부가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를 살펴보면 월드컵은 투자와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4조원, 국가브랜드 홍보 7조 7천억원, 기업 이미지 제고 14조7천6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가가치 4조원은 2001년 국내 총생산(GDP)의 0.74%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정보기술(IT) 산업, 문화산업 등 국내 산업이 연쇄적으로 발달하는 간접효과도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드컵 관련 지출은 경기장 10곳 및 주변도로 건설 투자, 응원 등으로 인한 조업차질 4천98억원 등 총 4조8천 805억원으로 집계돼 이익이 지출을 압도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한일 월드컵으로 우리나라가 총 3조5천5천여억원을 지출하고 5조천억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35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일 월드컵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의 금융사인 포스크방크는 2006년 월드컵이 독일 경제에 100억 유로(약 11조8천577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4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독일 월드컵 조직위원회도 2억유로의 입장권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축구연맹(FIFA)의 지원금과 국내 공식 공급 업체 후원금을 더하면 수입이 4억3천만 유로(5098억원)에 달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개최국만 이익 보나요?

월드컵 개최국이었던 2002년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독일 월드컵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이 독일 월드컵 진출로 2천500억엔(약 2조729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제효과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실제 기업들의 광고 전쟁, 가전업체나 여행업체의 특수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예상외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박지성, 이영표를 잇는 국제적인 스타를 배출할 경우 경제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실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은 월드컵 직후 네덜란드 PSV아인트호벤에 진출해 3년 6개월간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 420만 달러(39억원)를 받았고 지난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후에는 연봉이 약 37억원으로 경중 뛰었습니다.

4 기업들의 활용 전략은?

4년 계약기간을 감안할 때 그가 벌어들이는 총액은 150억원에 이릅니다. 선수 개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부수적인 효과는 금전적인 액수로는 계산이 어려울 정도로 큼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월드컵이야말로 놓칠 수 없는 마케팅 무대입니다.

요즘 통신, 가전, 온라인 등 IT업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월드컵 마케팅에 한창입니다.

국내에서 월드컵 마케팅이 가장 치열한 곳은 이동통신업체입니다. 응원가 제작을 지원하는가 하면 축구 관련 요금제와 거리응원권을 준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대한민국 응원체널'을 표방하며 붉은 응원리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서울광장 거리응원 프로그램도 마련, 5월 말~6월 초 예정된 대표팀 평가전 때 경기 사전행사와 경기중 거리응원을 벌일 계획입니다.

KTF도 '붉은악마'를 공식 후원하기로 한데 이어 이른바 '꼭지점 댄스' 응원 캠페인으로 SK텔레콤의 '붉은 리본 응원전'에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KTF는 지난 2002년 월드컵 공식 후원 업체로 활동하면서 팬스 광고로만 1조2천억원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도 붉은 악마의 상징인 붉은 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앞다퉀 월드컵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브랜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세계 '길목 마케팅'으로 IT 월드컵의 장외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공항은 물론이고 유명 관광지, 명소 등 월드컵 인파가 몰리는 '길목'을 '삼성'과 'LG' 브랜드로 새긴다는 전략입니다.

세계 65억명이 함께하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

월드컵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올해 독일 월드컵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브라질의 현직 일간지인 글로보가 최근 축구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축구가 정치 무대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주셀리노 쿠비셰키 전 대통령(1956~1961년) 때부터로 자신의 재임 시절인 1958년 브라질이 스웨덴 월드컵을 제패하자 대표선수들과 그들의 사진이 담긴 스티커를 정부정책 홍보와 대국민 설득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산업화를 이끌고 수도 브라질리아를 건설한 쿠비셰키 전 대통령은 지금도 'JK'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브라질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축구가 쿠비셰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에서 절대적인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강력한 국가발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50년 가까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인물로 남는데 축구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회 우승국 브라질

국민들 뭉치게하는 힘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

1970년에는 파울로 말루피 상파울루 시장이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승한 브라질 대표팀 선수 25명 전원에게 승용차를 1대씩 선물로 안기는 이벤트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콜라 대통령도 대표팀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각자 좋아하는 팀을 1개씩 가졌다는 브라질의 대통령답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상파울루 연고의 코린티안스 팀을 수시로 대통령궁으로 초청, 국민들에게 정치 외적인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브라질에서는 독일 월드컵의 성적이 선거의 결과에 미칠 영향을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야 다소 빛이 바래가는 했으나 '축구의 정치학'이라는 용어는 브라질에서 축구가 존재하는 한 아직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카를로스 알베르토 페레이라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축구 대표팀은 브라질 역사를 통해 어렵고 중요한 고비마다 국민들을 한데 뭉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민자의 나라 브라질에서 축구는 애국심을 발동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동기가 되고 있다"며 축구와 정치의 연관 관계를 사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별취재반

실내정원

www.j2v.net

전립선 J2V

호남지사 ☎1588-3871

전립선 J2V

www.j2v.net

호남지사 ☎1588-3871

서경빌딩 임대

www.j2v.net

호남지사 ☎1588-3871